



한국게임산업개발원

kotra

# 동남아 게임시장 동향 정기보고서

[인도네시아]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불법 복제에 멩드는 PC & 콘솔 게임
- 불법복제 천국, 글로독 엿보기

3호 - 2007. 1월

## 인도네시아, 불법 복제에 멎드는 PC & 콘솔 게임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시장의 주력은 온라인게임이 아닌 전통적인 PC나 콘솔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PC나 콘솔게임 인구까지 포함하면 인도네시아의 실제 게임인구는 엄청난 규모이지만, 그 규모에 비해 PC게임이나 콘솔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이익은 상당히 적은 데, 이는 불법복제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지적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IIPA)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품이 2004년에 87%에서 2005년에 85%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여전히 세계 3위의 불법복제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IBM, INTEL, APPLE, Microsoft 등 미국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인 BSA가 2006년 6월 8일 발표한 '2005년도 전 세계 불법복제 보고서'에서도 베트남(97%), 짐바브웨(90%)와 더불어 인도네시아가 87%로 불법복제국가 3위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렇게 불법 복제가 번성하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 게이머들이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게임 타이틀을 사서 플레이를 할 정도의 경제수준이 되지 않는 데다, 정부의 단속마저 불법복제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의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의 사용권 뿐 아니라 일단 소유권이 생겼으므로 복제나 판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행태를 부추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PC게임과 콘솔게임 S/W의 복제율은 놀라운 수준이며, 심지어 콘솔 H/W까지도 복제품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 〈인도네시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 통계〉

(단위: US\$백만)

년도	총 피해액	복제품 비율
2001	63.1	88%
2002	109.6	89%
2003	94	88%
2004	100	87%
2005	97.9	85%

\* 자료원 :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

PS2가 시장에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도네시아 최대의 전자제품 복제시장이라고 불리는 Harco Mangga Dua에는 이미 정상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PS2 콘솔 H/W 불법복제품이 나돌았을 정도라고 한다.

정상적인 PS2의 가격이 3백만에서 5백만 루피아 라면, 복제품을 절반가격도 안 되는 1백만 루피아 내외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1만 루피아 1천원)

그래도 H/W인 콘솔기기는 가격도 비싸고,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불법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불법복제 제작단가가 낮은 게임 타이틀들은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로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원래 정상적인 CD타이틀들은 10만루피아에서 15만루피아 이지만 복제품은 5천루피아에서 1만루피아 수준에 거래가 되므로 대략 1/20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복제 CD의 경우, 품질이 안 좋아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워낙 염가이다 보니 잘못된 것은 버리고 되는 것만 사용하더라도 손해 보는 것이 없으므로 H/W에 비해 훨씬 더 성행하는 편이다.

IIPA에서 인도네시아를 '우선감시대상국'에 등재시킨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시장단속에 나서왔으나 아직까지 불법복제를 뿌리 뽑을 정도의 강도 높은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복제 천국, 글로독 엿보기

인도네시아 내 최대 해적판 시장이라 일컬어지는 서부 자카르타 글로독 지역(Harco Mangga Dua가 H/W 복제품 중심지역이라면 글로독은 S/W 복제 중심 지역임)에서 2001년부터 2개 점포를 운영하며 불법 CD를 판매해 온 어느 사업자는 전성기에는 한 해 15억 루피아(한화 1억 5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불법 CD판매사업 자체는 불법이지만 뇌물을 통해 무사히 단속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과, 인도네시아에서 돈 주고 정품을 살만큼 소비자들이 여유가 없다보니 정품판매로는 사업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에 불법 CD사업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독 지역의 주차장 철거지에 위치한 해적판 시장은 비록 냉방시설도 없이 찌는 듯이 덥지만 새롭고 다양한 음악 CD나 영화 DVD를 구입하려는 손님으로 항상 들끓고 있다

이곳에서는 개봉한 지 얼마 안되는 미국, 아시아 영화 뿐 아니라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2001년에 시장입구 쪽에 2.5평 부지를 월 25만루피아에 임차해 사업을 시작했던 이 사업자에 따르면 임대료가 4년 사이에 10배에 이르는 월 250만루피로 뛰었다고 할 정도로 이 지역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중이다.

불법CD업계에서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은 '재빨리 최신 해외 작품 CD를 사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데, 이를 위해서 전 세계에 그물을 치고 있는 화교들이 알선업체라고 한다.

2001년에는 불법CD도 한 장에 3만루피아였지만 지금은 경쟁이 격화되어 한 장에 5천 루피아로 떨어져 이익도 감소했다고 하며, 경찰의 부정기적인 단속으로 매출이 불안하기도 한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유도요노 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단속이 강화되어 사업 환경은 오히려

려 열악해 졌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과 업계사이에 형성된 유착관계가 경찰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는 계속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단속을 대비해 불법 CD판매업자들은 일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상납금은 점포마다 납입하는 것과 업자가 공동으로 상납하는 2종이 있는데, 뇌물은 저작권 위반을 단속하는 주 경찰이나 국가경찰, 행정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 상납되며, 간접적으로는 대기업 언론에까지 건네지고 있다고 한다.

불법복제 CD의 생산원가를 살펴보면 공 디스크 한 장에 1500루피아, 표지 300루피아 등 대략 2,000루피아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업자들도 있지만, 2,150루피아에 도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복제기를 자택에 설치해 4명의 직원을 두고 하루 최대 5천매까지 복제해 오던 한 업자는, 2005년 12월 단속 때 종업원이 체포되고, 복제기와 해적판CD가 모두 압수된 이후에 직접생산을 중단하고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해 판매에만 주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압수된 CD들이 바로 시장에 나도는 일도 있을 정도로 불법CD 판매와 단속은 복마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복제 CD제조 및 판매는 최대 7년 징역 및 5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적판 업계에서도 자기들만의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정품 음악 CD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차별화한 CD에는 복자체의 마크를 넣어 다른 동업자가 이를 복제하면 '룰 위반'으로 경고하고, 교섭 등을 통해 중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밖에도 무단으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대형고객을 빼앗지 않는다, 국내 영화는 복제하지 않는다는 등 나름대로의 업계 내부 룰을 가지고 있다고 한

다.

# 자료원 : 자카르타 무역관 게임산업 관계자 인터뷰 종합

KOTRA 자카르타무역관 Ms. DiDi

Tel : (62-21)-574-1522

Fax : (62-21)-572-2187

E-mail : nengdd@yahoo.com